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환율급등과 화학산업의 장래

원화환율이 달러당 1000원 가까이 오르는 등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화학,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환율급등에 따른 투자 및 수지계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이 설비투자를 10년이상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은행은 「환율변화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환율이 상승할 경우 설비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상승이 설비투자를 증가시키지 못하고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환율상승이라는 충격은 설비투자를 충격이 발생되는 초기시점부터 즉각적으로 감소시키고 그 감소효과는 2년반이상 지속되며, 4년반정도 지나면 환율상승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증가와 생산능력 확대로 2년정도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환율상승이 설비투자를 크게 감소시키며 그 효과도 12 13년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구조가 대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투자는 어떠할 것인가? 80년대말부터 90년대초에 걸쳐 1차투자를 마무리한 국내 석유화학산업계는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연적이라고 보고 2차투자를 준비중이다. 이미 합성수지 수출비중이 50% 안팎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규모화를 통해 빈약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투자의 부채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외화부채를 끌어 쓸 수밖에 없는 2차투자를 곧바로 감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94~95년 2년동안 호황을 누렸다고는 하지만, 91~93년의 적자총액 1조2000억~1조3000억원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96년 하반기 이후에는 또다시 적자상태에 빠져 있거나 어렵게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급등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출수지라도 크게 호전된다면 모르겠으나…

하지만, 석유화학산업은 수출비중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환율급등에 따른 수출증가 가능성이 커 이득을 보는 편이나, 원자재 수입비중이 35~40%에 달해 환율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수출상승에 따른 매출증대가 예상되고는 있으나 원자재인 나프타의 비중이 워낙 커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수입상들이 벌써부터 환율급등에 따른 수지호조를 예상해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실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치산업의 특성상 외화부채규모가 커 환율상승에 따라 커다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계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부채 추가지급액 규모가 매출액의 0.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유정제산업은 환율상승으로 채산성 자체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원유 도입가 자체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5대 정유사의 외화부채규모가 75억~8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750억~8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산업계는 수출비중이 50%정도로 매우 높은 반면,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10~20%에 그쳐 환율상승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엔화환율의 동반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압력과 외화표시 부채 부담증가로 수출증대효과를 다소 상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수출액의 80%이상을 달러로 결제받고 있어 원화절하의 수혜폭이 높은 편이며, 원화 1% 절하시 영업이익이 200억원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 4개사의 달러표시 순채무는 1조5000억원 정도로 환차손은 13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조선산업도 매출의 87%가 달러화 결제의 수출로 환율상승시 최대의 수혜를 받게 된다. 조선산업의 수입제품은 전장품 등으로 재료비의 12%를 차지하나, 매출액의 8.7%에 불과하고, 4개사의 외화부채도 2조원에 머물고 있어 외환손실폭은 전체적으로 16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합성수지 수출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환율급등의 혜택도 보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화학저널 1997/11/10>